

이낙연 지사 “재정압박·티켓강매 F1은 곤란”

“도민 상식과 협조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 아니면 안돼”

지원담당관실 업무보고서 ... 국제모터스포츠대회 신설 반대

이낙연 전남지사가 15일 도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F1대회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전남도 F1대회 지원담당관실의 201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업무보고에서 F1대회 지원담당관실은 F1을 대신할 국제모터스포츠대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회 종류 및 참가차량 클래스, 경기방식 등을 결정한 후 2016년 10억~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6 KIC 국제 모터스포츠대회'를 개최

하겠다고 밝혔다.

F1대회 지원담당관실은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 말레이시아 세팡 서킷, 일본 스즈카 서킷 등 세계 각국의 국제자동차경주장이 '뉘르부르크링 24시간 내구레이스', '1000km 내구레이스', '월드 슈퍼바이크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서킷의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전남도가 개최하는 국제대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하지만 이 지사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우선 F1 대회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첫째 이유로 들었다. 막대한 재정 손실은 물론 향후 위약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회를 신설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무슨 사업이든 앞으로 수치분석을 해 5~10년 뒤 들어갈 비용과 수입 전망을 해야한다”며 “아무것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열정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티켓 강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티켓 강매는 없을 것인가, 강매 비율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1대회를 유치·개최하는 과정에서 수치분석에 실패하고 티켓을 강매하면서 전남도의

재정 부담은 물론 도민의 물적·심적 부담을 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며 (뜻을) 짐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도민 상식과 협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못박고 “F1대회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가장 큰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개최하기로 한 F1대회는 무려 875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뒤 적자 누적, 여론 악화 등으로 2014년부터 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책 결정 실패, 수치분석 미흡, 예산 집행과정의 불투명 등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사장 양지문씨 내정

이낙연 지사 특보 역임



제6대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양지문(58·사진)씨가 내정됐다. 전남도는 15일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12일 전남개발공사 인사추천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양씨를 개발공사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통해 지원자 28명을 접수 받은 뒤 서류심사를 통해 6명의 면접 대상자를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등 5개 분야 면접을 거쳐 후보자 2명을 최종 선정해 전남도에 추천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구조조정과 조직 혁신에 적합하면서 전남도와 잘 협의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내정자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1월 말 취임하게 되며 임명일로부터 3년간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무안에서 출생해 목포고를 졸업했으며, 초당대에서 금융보험학,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행정학을 전공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및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부위원장, 민선 6기 전남도 중소기업특보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 공모를 앞두고 자격 기준을 삭제한 뒤 민선 6기 이 지사의 특보를 지낸 양 내정자를 1순위로 추천해 특정인의 개입설, 담합설 등 각종 ‘설’들이 난무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재공모까지 거론됐으나 이 지사가 양 전 특보를 내정하면서 향후 논란은 수그러질 전망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4년 전라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자본금 5000억원, 자산 1조2000여억원, 2015년 예산 4879억원으로 전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간부회의 ‘토론중심’

보고·지시 벗어나 난상토론 장으로

광주시가 간부회의를 틀을 지시 중심에서 토론으로 바꾼다.

윤창현 시장은 15일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목요간부회의는 기존의 실국별 보고와 시장의 지시라는 틀에 박힌 형태에서 벗어나 간부공무원간 의제별 토론의 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실국 간 벽을 허물고 모든 간부들이 난상토론을 벌여 현안을 공유하고 의제별로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활용할 것이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분야 교수 등 전문가도 부르고 브레인스토밍도 하자”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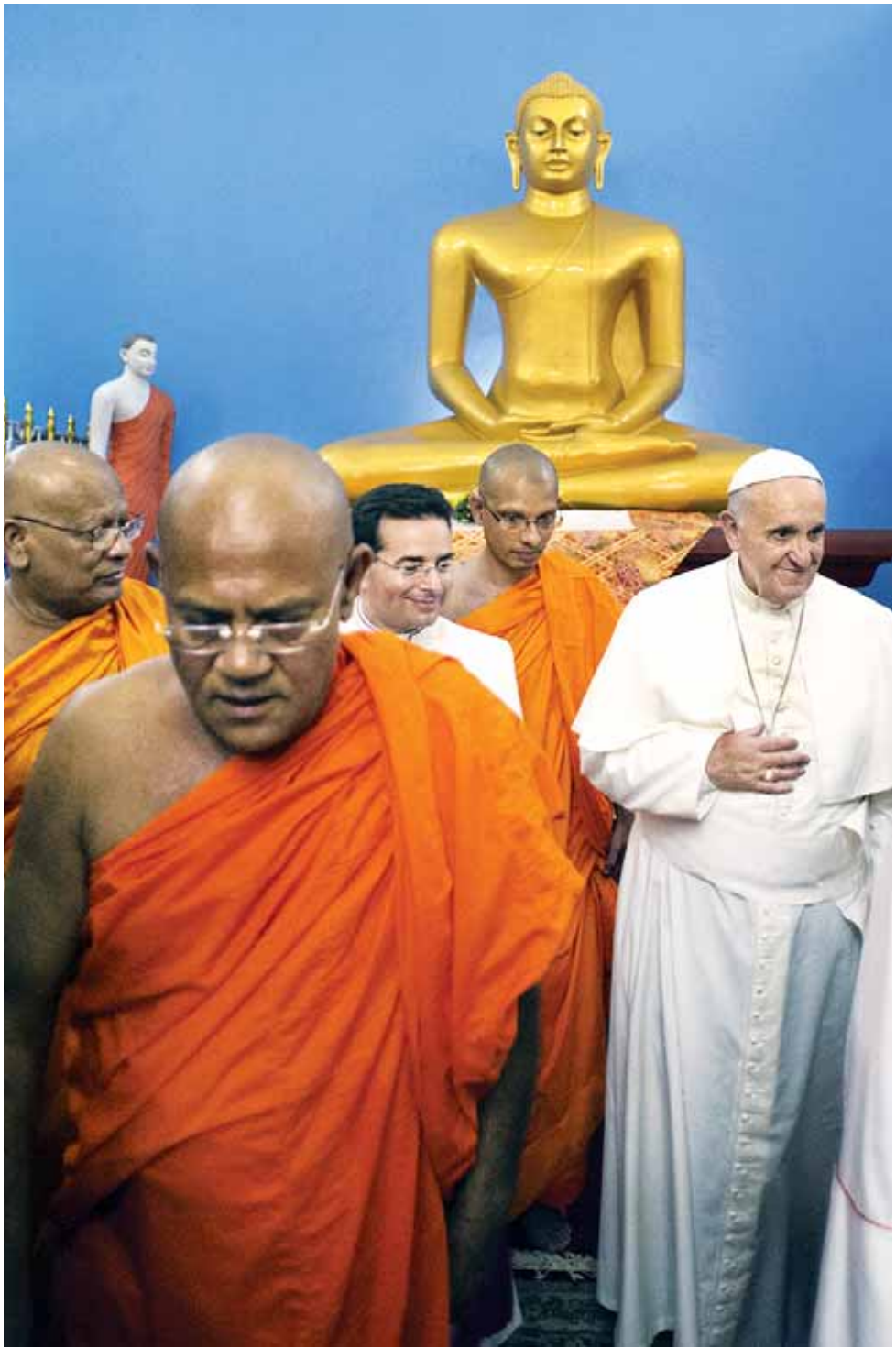
이 같은 변화는 윤 시장이 새해 들어 민선6기의 시정철학과 구상을 속도감 있게 실천함으로써 시민들과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날 첫 토론에서는 빛가람혁신도시 중

합대책,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른 대체 열원 확보 방안, 앞으로 설립되는 복지재단의 명칭 등을 의제로 올려 간부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 대책과 관련, 광주·혁신도시 간 교통문제 해결 방안, 에너지, 문화, IT 등 입주 기관별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산업대책 강구, 공동발전기금 활용 방안, 의료서비스 제공, 입주기관과 연계한 내년도 국비확보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윤 시장은 전남도와 함께 배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5월쯤에 가칭 ‘빛가람배꽃축제’를 열어 입주기관 종사자들을 위로 격려하고 관련 지자체와 일체감을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콜롬보 사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

아그라수라바카 불교 사원을 전격 방문,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스리랑카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일정에 없던 콜롬보 시내 아그라수라바카 불교 사원을 전격 방문,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당 정책 자문기구 ‘국정자문회의’ 구성 완료

김진표 전 부총리 의장

전직 장관 등 23명 참여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당의 정책 자문기구인 국정자문회의의 구성을 마무리했다.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전 의원이 의장을 맡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장·차관급 고위직을 지낸 22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경제 전문가로는 전윤철·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이정우 전 대통령 정책실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장관,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이, 외교·안보 전문

가로는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교육 전문가로는 김신일·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각각 참여한다.

신남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안병엽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장하진·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등 각 분야 전직 각료와 박준영 전 전남지사, 김원주 전 전북지사,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 출신도 합류키로 했다. 이들의 현재 당직 보유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고 새정치연합은 설명했다.

국정자문회의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당의 정책 결정과 홍보에 관한 자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많은 전남개발공사, 경도골프장 팔릴까

이달말 경영평가 ... 4개 업체 매입 의사

전남도 유일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발표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이하 여수경도골프장) 매입 의사를 표명하는 업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는 일단 경영진단에서 매각, 임대, 현 상태 유지 등을 결정한 뒤 논의할 내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남개발공사 부채 감축이 급선무로 부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낙연 지사 취임을 전후해 전남개발공사 부채를 줄이려면 여수경도골프장을 매각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후 지금까지 4개 업체가 골프장 매입 의사를 전남개발공사에 전달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고 다만 편당을 통해 매입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여수경도골프장 부채가 많다 보니 전남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골프장 매각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달 말 개발공사 경영진단평가 결과가 나오고 후임 공사 사장이 임명되면 매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여수경도골프장을 매각하면 골프장을 지으면서 발행한 공사채 1950억원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